

## 폐 과오종의 외과적 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 용환, 김 주현

1981년 1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폐과오종 20례를 경험하였다.

그중 10례는 남자이고 10례는 여자였으며, 나이는 22세에서 7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2례에서는 기관지내에 병변이 있었고 나머지 18례에 있어서는 폐실질내에 병변이 있었다. 50%(10/20)에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병변이 발견되었다. 그중 1례에 있어서 동시에 여러 병변이 발견되었으며 폐암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1례있었다. 외과적 치료로는 폐엽절제술과 설상절제술 그리고 종양적출술을 같이 해 준 경우가 1례(5%) 있었고 폐양엽절제술을 해 준 경우가 2례(10%) 있었고 폐엽절제술과 설상절제술을 동시에 해 준 경우가 1례(5%) 있었고 폐엽절제술을 해 준 경우가 5례(25%) 있었고 분절절제술을 해 준 경우가 2례(10%) 있었고 폐 설상절제술을 해 준 경우가 7례(35%) 였으며 폐종양적출술을 해 준 경우가 2례(10%) 였다. 모든 환자가 외과적치료로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